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내년도 정부 예산 238.5조 원으로 6.4% 증가
- 美,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 급증

경영 노트

- '맞춤형 인재' 육성에 앞장서는 선진기업

사회 트렌드

- 고구려 신드롬
- 인문학 위기

저널 브리프

- 신흥국들, 세계 경제 주역으로 파워 시프트(Power Shift)

洗心錄

- 대화의 법칙

□ 내년도 정부 예산 238.5조 원으로 6.4% 증가

- 2007년 정부 총지출은 238조 5,000억 원으로 올해의 224조 1,000억 원보다 6.4% 증가하였으며, 총수입은 251조 8,000억 원으로 올해의 235조 3,000억 원보다 7.0%가 확대됨
 - 이에 따라 내년도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3.7조 원의 적자(GDP 대비 1.5%)를 기록할 전망이다
 - 주요 분야별로는 R&D 부문이 9.8조 원(10.5% 증가), 사회복지·보건 부문이 61.8조 원(10.4% 증가), 교육 부문이 30.9 조 원(7.4% 증가), SOC 부문은 18.2조 원(1.1% 감소) 등으로 자원 배분이 편성됨
- 이번 예산안이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내년에 예상되는 경제 상황 악화와 관련되어 SOC 투자와 같은 경기 연착륙에 도움이 될 분야에 대한 비중이 축소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됨

□ 美,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 급증

- 미국의 8월 신규 주택 판매 가격 및 기존 주택 판매 가격이 모두 전년동기 대비 각각 1.3%와 1.7% 하락함
 - 특히 기존 주택 가격은 1995년 이후 11년만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하였으며, 신규 주택 가격도 지난 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짐
 - 기존 주택 가격의 하락은 대부분의 주택 수요자들이 향후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구입을 연기함에 따라, 매물이 급증하여 매도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이와 같은 기존 주택 재고 상승의 영향으로 신규 주택의 재고도 증가함에 따라, 신규 주택 가격도 동반 하락하고 있음
- 지난 호황기에 미국 민간 소비의 구매력 원천으로 작용하였던 주택 경기가 냉각됨에 따라 향후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낮아짐
 - 만약 주택 가격이 급락할 경우 지난 2000년의 주식 시장 붕괴로 유발된 경기 침체 현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중임

□ ‘맞춤형 인재’ 육성에 앞장서는 선진기업

- (개요) IBM, BMW, 크레디스위스 등 선진 기업들이 자사의 사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기업들이 맞춤형 인재를 공급받기 위해 대학의 커리큘럼을 직접 개발하는 한편, 간부들을 직접 대학에 보내 강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글로벌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기업주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사업에 적합한 우수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추진하고 있음

- (사례) IBM의 경우, 대학에 특정 커리큘럼 개설을 지원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 수요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활발한 투자를 실시함
 - 기존 IT기업의 이미지에서 솔루션과 서비스기업으로 변신하려는 IBM은 ‘서비스과학, 경영과 공학’(SSME)*이라는 학문 분야를 개발, 2002년 말부터 사내 연구소에서 세계 최초로 SSME 연구를 시작함
 - IBM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서비스 경영’이란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UC버클리 대학에는 ‘정보와 서비스경제학’이란 과목을 도입함
 - 이에 따라 IBM은 대학 사업에 연간 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SSME 과목에 대한 지원금도 최근 3년간 매년 30%씩 늘리고 있음
 -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와 보잉 등도 대학 및 미 교육부와 연계하여 기업 요구에 적합한 기능 인력의 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시사점) 변화하는 경영환경에서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양성 커리큘럼을 대학과 연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현행의 대학 인재 교육은 이러한 변화 속도에 수요를 맞추지 못해 기업이 직접 나서고 있다고 분석함
 - 기업은 신규인력 채용과 육성에 관한 기존의 인사관리시스템을 재검토하는 한편, 특히 신사업분야 등 장기적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대학과의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함

* SSME(Service Science, Management and Engineering)란 경영학, 컴퓨터과학, 사회과학, 법학 등 영역이 다른 분야를 한데 묶어 고객과 서비스업체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을 지칭함

□ 고구려 신드롬

- 드라마, 출판, 공연 등에서 고구려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잇달아 선보이면서, 우리 사회에 고구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현재 방송 3사 모두 ‘주몽’(MBC), ‘연개소문’(SBS), ‘대조영’(KBS) 등 고구려와 발해를 배경으로 한 사극을 방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광개토태왕을 소재로 한 ‘태왕사신기’도 방영할 예정임
- 이러한 고구려 신드롬은 동북공정에 대한 반발, 영웅에 대한 기대 등 답답한 사회 심리를 반영하고 있음
 - 첫째, 중국의 동북공정의 핵심 이슈인 고구려 역사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증폭된 것이 일차적인 배경임
 - 둘째, ‘고구려 열풍’은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점과 부조리를 시원스럽게 해결해 줄 영웅을 학수고대하는 기대 심리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음
 - 셋째, 대외 관계에서 주체적이고 적극적이었던 고구려의 기상이 최근 미, 일, 중 등과의 관계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후련함과 민족적 자긍심을 느끼게 하고 있음

□ 인문학의 위기

- 지난 28일 개최된 ‘인문주간’(9월25일~30일) 개막식에서는 전국 93개 대학 인문대학장들이 모여 인문학의 진흥을 주제로 한 성명서가 발표됨
 - 지난 15일에는 고려대 문과대 교수들의 ‘인문학 위기 선언’이 있었음
- 기초 연설을 맡은 이어령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인문학의 위기를 전염병에 비교, “인문학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 나라 전체가 역병에 감염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함
 - 인문학은 모든 학문과 사회, 기술, 경제, 정치 분야의 수원지(水源池)이며, 이 수원지가 마르면 사회(Society), 기술(Technology), 경제(Economy), 정치(Politics) 즉 스텝(STEP)이 페스트(PEST)로 변한다는 것임
- 인문학의 위기는 신자유주의나 세계화의 진전이나 확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성과에만 목을 매는 천박한 우리 사회의 풍토가 그 주범임
 - 신자유주의의 선봉에 서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인문학은 여전히 리더와 교양인의 소양으로 여겨지고, 기초 학문으로서 존중을 받고 있음

□ **신흥국들, 세계 경제 주역으로 파워 시프트(Power Shift)***

- (글로벌 경제 주역의 세대 교체) 세계 생산 및 소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흥국들이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며 글로벌 경제 주역으로 변모하고 있음
 - (신흥국으로 경제 중심축 이동) 신흥국들은 세계 생산 및 소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진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세계 경제 성장의 중심축이 이동되고 있음
 - 세계 생산 및 소비에서 높은 비중: 신흥국들은 2005년 글로벌 생산 증가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 간 세계 석유 수요 증가분의 80%를 소비하는 등 세계 생산 및 소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세계 경제 성장 견인: 신흥국들은 자국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선진국 수출의 절반을 수입하는 등 선진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신흥국들의 성장에 따르는 문제점) 신흥국들의 성장은 선진국의 일자리 감소, 산업 피해, 세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선진국 일자리 감소 및 산업 피해) 신흥국들의 저임금 아웃소싱 기저화로 선진국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신흥국의 저가 수출품 공세로 선진국 산업의 피해가 속출함
 - (원자재 가격 상승) ‘원자재 블랙홀’로 대변되는 중국 등의 수요 급증에 의한 유가 등 각종 원자재 가격이 급속하게 상승함
- (시사점) 신흥국들의 저가 수출품 공세로 선진국의 산업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주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수출 대상국의 다변화 등 선진국의 보호주의에 대한 대비책 수립 노력이 필요함

* 이 글은 『한경 비즈니스』(2006.10.2-9)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대화의 법칙

래리 킹(Larry King)은 1985년부터 지금까지 CNN의 <래리 킹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 명사회자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대화의 법칙」(How to Talk to Anyone, Anytime, Anywhere)에서 서문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말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더더욱 말을 잘하지 않고는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바랄 수도 없다!”**

우리 일반 사람들의 관심은 대중 연설보다는 매일매일의 일상적 대화, 그것이 사교적이든, 직업적이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가하는 점이다. 래리 킹은 그 방법을 다음 여덟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라. 말 잘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라도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사물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점이다. 자신의 일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져라. 그래야 기대 밖의 통찰력도 보여 줄 수 있다.

둘째, 시야를 넓혀라.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일상의 다양한 논점과 경험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라. 당신의 레퍼토리를 풍부하게 해주며 사고의 폭도 넓혀 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관심을 끌 뿐 아니라 남에게도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남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과 대화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셋째, 열정을 가져라. 빌 클린턴, 라소다(전 LA다저스 감독) 등은 모두 훌륭한 화자였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일에 대하여 무척 ‘열정적’이었고 말하는 가운데 그러한 열의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 직업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취미, 자선 활동, 막 읽은 책 등 열정적일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여 그런 열정을 대화 속에 풀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당신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도 그 이유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고, 당신은 재미있는 화자가 될 것이다.

넷째, 당신 자신에 대해서만 말하려 하지 마라. 상대가 당신에 대해 물어보면 정확히 답해 주어야 하지만 너무 길게 해서는 안 된다. 상대 또는 주위 사람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실 대화를 잘 풀어나가는 사람은 모든 일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서 자신의 시야를 넓히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다.

다섯째, 공감을 표시하라. 우리가 가장 말하고 싶은 상대는 자신의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당신도 상대방에게 공감을 표시하는 게 필요하다. 이 분야의 달인은 오프라 윈프리다. 그녀는 자신의 쇼에 출연한 초대 손님들에게 확실한 공감을 나타냄으로써 출연자는 물론 시청자와도 강한 연대감을 형성한다.

여섯째, 유머 감각을 보여 주라. 래리 킹 자신이 연설할 때 지키는 기본 원칙 중 하나는 ‘너무 심각한 말을 너무 오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머에 관해 주의할 점은 ‘제가 겪었던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하는 식의 작위적인 시작은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일곱째, 자기만의 스타일을 개발하라.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변호사 중 하나인 에드워드 베넷 윌리엄은 소곤거리듯 부드럽게 말하는 스타일인데, 그의 말을 듣기 위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몸을 앞으로 당겨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크게 소리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자기의 말 속으로 끌어들이었다. 누구는 극적인 감각에, 누구는 감정, 누구는 상대의 분노에, 누구는 논리에 호소하는데, 저마다 자기에게 편한 스타일을 찾아내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덟째, 침묵의 순간이 필요할 때도 있다. 당신이 아무리 뛰어나고 말을 잘 한다 해도, 침묵을 지키는 게 더 좋은 순간들이 있다. 사람들은 모든 대화에 끼고 싶어하는 충동심리가 있다. 이런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할 때가 있다.

“현명한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말한다.
바보는 뭔가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

- 플라톤 (BC 429~347) : 그리스 철학자